

† <미사 및 본당모임 안내>	
금주 미사 독서: 조은영 베다, 김보미 로마	+ 지난주 우리의 정성
다음주 미사 독서: 홍진국 클레멘스, 한영주 리드비나	봉헌금: \$ 209
금주 미사 복사: 권인호 바오로	교무금: \$ 600
다음 주 미사 복사: 유지원 카타리나	생미사: \$ 10
금주 미사 해설: 최고은 소피아	매일미사책 및 성경책 판매: \$ 55
다음 주 미사 해설: 윤지희 데레사	감사헌금 (황지혜 레지나): \$ 300
반 주: 조은영 베다, 황지혜 레지나, 강동현	합계: \$ 1174
회 계: 황성필 요한,	봉헌봉사: 전은숙 글라라
친교실 정리: 3 구역	다음주 봉헌봉사: 김태진 하상 바오로
주 일 미 사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고 백 성 사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미사 전까지.
목 주 기 도	매주 미사 20분전 (오후 4시 40분 부터 4시 55분까지)
성가대 연습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지하 성가 연습실]
친교/간식 모임	매주 미사 후 [지하 친교실]
† <공동체 모임 알림판>	
남성교우 기도모임	격주 금요일 (5 월 17 일 저녁 8:00, 사제관)
성모회 금요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오후 1 시 (장소: club.catholic.or.kr/thekccm 게시판 참고)
교리 모임	미정
성경 통독 모임	격주 금요일 (5 월 24 일 저녁 7:00, 장소: 페이스북 클럽 참고)
골프 모임	동계 휴식기
테니스 모임	매주 일요일 (Nielsen Tennis Stadium, 시간: 페이스북클럽 참고)
† <구역모임 알림판>	
1 구역	매월 둘째주 토요일
2 구역	매월 첫째주 토요일
3 구역	매월 셋째주 토요일
대학원 구역	미정
학부생 구역	미정
† 오늘의 묵상	
어릴 적에는 ‘예수님의 승천’을 동화 같은 이야기라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슈퍼맨처럼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것이 참으로 신기했던 것입니다. ‘승천’이라는 말을 말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학 공부를 하면서 오해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늘’이 뜻하는 것을 과학적 의미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의미, 곧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소련 시절에 우주선이 발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우주선의 조종사에게 그렇게 높은 하늘에 다녀온 소감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하늘에 올라가 보았더니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더군요.” 이 우주선 조종사 역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한 그 하늘을 과학적 의미로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초월적 세계를 가리킵니다. 곧 시간이나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곳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창조물의 세계가 아니라 창조자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승천을 어떻게 알아들어야 할까요? 그분께서 하늘로 오르셨다는 것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 전적으로 하느님의 세계에 오르셨음을 뜻합니다. 곧 예수님께서 참으로 하느님이심을, 그래서 본디의 당신 자리로 돌아가셨음을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 ‘승천’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승천’은 곧 ‘현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높이신 자리로 현양되신 것입니다.	

주임 신부

유성모 요셉
(608) 293-1114

사목외장

이종재 프란치스코
(608) 772-5701



홈페이지

club.catholic.or.kr/thekccm

Facebook 클럽

Facebook 검색에서
“매디슨 한인천주교회” 검색

이메일

kccmwi@gmail.com

주님 승천 대축일

2013년 5월 11일

<제 1 독서>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제 2 독서>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

화답송

- ◎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 모든 민족들아, 손뼉을 쳐라. 기뻐 소리치며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주님은 지극히 높이신 분, 경외로우신 분, 온 세상의 위대하신 임금이시다. ◎
-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노래하여라, 하느님께 노래하여라. 노래하여라, 우리 임금님께 노래하여라. ◎
- 하느님이 온 누리의 임금이시니, 찬미의 노래 불러 드려라. 하느님이 민족들을 다스리신다. 하느님이 거룩한 아좌에 앉으신다. ◎

복 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복 음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의 끝입니다. 24,46 ~ 53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보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 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높은 데에서 오는 힘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베타니아 근처까지 데리고 나가신 다음, 손을 드시어 그들에게 강복하셨다. 이렇게 강복하시며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서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줄곧 성전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며 지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영성제송]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알렐루야

[오늘의 성가] 시작: 137 봉헌: 210 성체: 175 파견: 141



향주덕(向主德)인 믿음, 희망, 사랑

믿음이라고도 하는 신덕(信德)을 통하여 우리는 하느님을 올바르게 알아보고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제 2 독서에서도 사도 바오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어 여러분이 그분을 알게” 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느님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은 하느님께서 계시해 주신 당신과 진리를 알아듣고 믿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가 믿고 고백하는 신앙은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는 매 미사 중에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라고 노래합니다. 그러므로 신덕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정말로 죽으셨다가 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즉,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구세주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희망이라고도 하는 망덕(望德)을 통하여 우리는 하느님을 우리에게 궁극적인 행복을 가져다주는 최고 목적으로 여기고 갈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도들은 성자 그리스도와 성부 하느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희망이라는 것을 깨닫고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망덕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희망을 둘 분은 주님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을 갈망해야 할 것입니다. 즉, 우리가 도달할 곳은 주님이 계신 그곳 뿐입니다. 사랑이라고도 하는 애덕(愛德)을 통하여 우리는 하느님과 친교의 일치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복음말씀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보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 주겠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단지 마음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성령의 도움으로 나날이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애덕은 증진될 것입니다. 그리고 애덕을 통하여 결국 우리는 하느님과 합일의 은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여정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느님을 향해 나가는데 도움을 주는 덕행들은 예수님의 부활부터 시작하여 주님의 승천으로 마무리되는 부활시기,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시기까지와 맞물려 우리에게 올바른 영성생활을 가르쳐 줄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느님께 이끌어 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교인의 영적 여정은 신덕을 통하여 예수 부활 대축일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이시라고 고백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또한 이 영적 여정은 망덕을 통하여 주님 승천 대축일인 오늘 우리의 영적 여정의 종착점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나라라는 것을 확인하고, 하느님 대전에 참여하여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 여정은 애덕을 통하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웃과 하느님을 극진히 사랑하는 긴 여행이 될 것입니다.

전영준 바오로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 공지사항

- 봄 야유회가 5월 19일 (일요일, 11am - 5pm)에 Elver Park (1250 McKenna Blvd, Madison)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교우분들이 모두 모여서 같이 식사, 게임 그리고 운동을 야외에서 하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미사는 5월 18일 토요일 5시에 St. Paul 성당에 있을 예정입니다.
- 건진 성사 안내
일시: 2013년 7월 20일 (토) 5시
장소: St. Paul
집전: 인천교구 교구장 최기산 보니파시오 주교
세례 성사 이후 건진 성사를 아직 받지 않은 분들은 올해의 건진 성사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진 성사 대상자는 추후 공지될 예정인 건진 성사 교육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자 교리교육 안내
7월부터 예비자 교리 교육이 있을 예정입니다. 7월 교리반의 세례식은 오는 12월 25일, 예수 성탄 대축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 성경책 (5권: 1권 \$50) 과 매일 미사 책 (\$5)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황성필 회계 담당 사목위원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지난 주에 새로 오신 최영연 글라라 자매님과 아들 조원익 라파엘군을 환영합니다.



우리 공동체 소식

< 성경 통독 모임 안내 >

교우 여러분, 함께 모여 주님 말씀을 들어 보아요 금요일에 격주로 모여 성경을 통독합니다. 저녁 7시부터 2시간 동안 통독 합니다. 함께 주님 말씀을 들으며 은총의 시간을 나눠 보아요. 남여 노소 누구나 환영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교우님은 연락주세요(전화 : 770-0291)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독서단 모집(계속) >

독서 봉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은숙 글라라 자매님 (esjeon95@mac.com) 혹은 김보미 로마자매님 (bomi921@gmail.com)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교적 정리 (계속) >

교적 정리가 진행중입니다. 성당 입구에 비치된 교적 양식을 작성하셔서 교적을 담당하는 **홍진국 클레멘스 형제**님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는 성당 홈페이지 게시판의 양식을 다운받으셔서 작성하신 후 메일로 (jkhong2350@yahoo.com) 보내주셔도 됩니다.

< 성가대 모집 (계속) >

성가대원과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교우분들께서는 지휘자 한영주리드비나 (lidwinahan@gmail.com) 에게 문의하시거나, 미사전후에 지하 Music Room 에 직접 들려주셔도 됩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 남성교우 기도모임 (계속) >

공동체의 남성교우 기도모임에 참여하세요, 격주로 모여 다함께 묵주기도 바치고 묵상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다음 모임은 **5월 17일 (금) 저녁 8시 사제관**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신부님 또는 홍진국 클레멘스 (jkhong2350@yahoo.com) 형제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